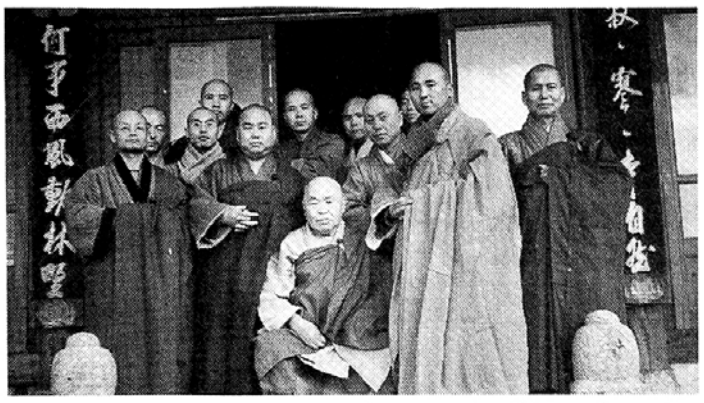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껍데기로만 살게돼요"

"힘 있을때 정진하세요 이것이 나와 남 살리는 '큰 일' 온국민이 이 도리 알아야…"



◇지난해 동안거 결제를 기념해 수좌들과 함께 한 성찬스님(앉은 스님). 그 오른쪽은 도성선원 원장 불산스님.

없는 병이 생긴 겁니다. 참선방에 앉기만 하면 시나브로 기운이 빠지고 졸음이 오는 병이 생겼어요. 이후 20여년간 공부를 방해하곤 했던 이 병은 나중에 충북 제천 강천사에서 아이들 경기(驚氣) 있을 때 먹는 주추 두밀과 한약을 함께 다려 먹고 나았지요.

생각해 보면 젊을때 대부분을 병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약 사 먹을 돈도 없었지만 남에게 손을 벌리는 성미도 아니었거든요. '죽으면 그냥 죽고, 살면 그냥 사는 거지' 했지요. 그때는 병을 이기랴 수행하랴 두배로 힘이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한 거지만 더욱 정진하라는 채찍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때는 50도 못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83살이니 말이죠. 〈보왕삼매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렇습니다. 병의 고통을 좋은 약으로 삼고 육신의 병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정진하노라면 병마는 물러가고 의지는 더욱 굳세지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전세(前世)에 게으른 탓이었겠지요. 수행자는 사소한데 걸리면 공부를 못해요. 또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을 가져야(大信) 하고 크게 깨닫겠다는 대원(大願)을 세워야 해요. 공부가 막힐 때에는 반드시 뜻을 이루고 말겠다는 분심을 내야(大憤) 합니다. 대원·대신·대분심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때 마하연에서 나름의 견처(見處)를 얻은 후에는 시비장단(是非長短)을 분별하는 지혜가 났지요. 평소 남의 말귀를 잘 못알아 들었는데 이후부터는 저절로 모두 이해가 되더군요. 일자무식이었던 내가 글귀도 알아먹게 되었고 천수관음주도 해석이 되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도 공부가 된 사람인지, 소견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만 들어도 마음이 보였습니다. 문자 공부 안해도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아는, 이른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경지라고나 할까요.

그후 선배나 노스님들에게 선문답을 하곤 했어요. 마땅한 답을 못 들으면 또 다시 인연을 찾아 나섰어요. 마땅히 정착할 곳이 없어 주로 선방을 옮겨 다니며 정진했습니다. 그렇게 20여 안거를 보냈지요.

불교정화 당시에는 영월 법흥사에서 월산스님(前 불국사 조실·지난 해 입적)과 같이 수행했어요. 도반이기도 한 월산스님은 문자를 모르는 나를 위해 경전과 선어록을 읽어주곤 했는데, 한번은 〈선문염송〉을 외워주더군요.

방거사가 (大道를 이루기 전) 어느날 대매스님을 찾아와 묻기를 "대매야, 살구가 익었느냐 말았느냐"하니, 대매스님 답왈(答曰) "일백가지 꽃이 피었느니라." 대매스님이 다시 묻기를 "살구 먹었으면 살구씨는 내 것이니 내놔!" 했지요. 그러자 방거사가 답을 못하고 막혔어요.

월산스님 덕택에 여기서 또 다시 한 소식을 얻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견처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경각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하지요.

내 나이 마흔을 전후해서는 충남 예산 전월사에서 만공스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너 철을 모시면서 선문답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정혜사에서는 이런 문답이 있었어요.

만공스님이 뜰앞의 코스모스를 보고 "코스모스가 잘 자랐구나"하자, 나는 "코스모스가 스님 쾌각입니다" 했지요. 그러자 스님이 "이것이 나를 놀려"하더군요. 그때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또 한번은 간월암에서 스님을 모실 때의 일입니다.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만공스님이 내게 묻기를 "저 배가 어디로 가느냐?" 나는 주먹을 내밀면서 "이리로 갑니다" 했지요. 그러자 만공스님이 아무 말씀 안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망월사에서는 춘성스님, 선학원에서는 석두스님, 월정사에서는 탄허스님 등의 선각·동료와 인연이 깊었습니다. 그분들과도 선문답을 통해 수시로 서로의 수행을 점검하곤 했지요. 간혹 어떤 수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문자로만 선문답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몇다디만 해보면 탄로가 나요. 선문답은 터득한 바가 없으면 문답이 되지 않아요.

처음 공부하는 이들은 참선을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자무식이었던 육조스님도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란 한 마디에 견성했어요. 부지런히 공부해 수행심이 무르익어 깨닫게 될 때는 한 마디만 일러주면 돼요. 볼기 맞다가도 깨닫고, 귀싸대기 맞다가도 깨치지요. 이는 물론 전생의 공부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만.

옛날 마산 승주사에 선방이 있었는데 산중에 있는 곰이 여름에 수좌들의 참선 수행을 엿보게 되었어요. 문을 활짝 열고 면벽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날마다 구경하고 흉내 내다가 나중에는 스님들하고 친해져 먹을 것도 얻어먹게 되었어요. 이것이 공덕이 되어 곰이 죽은 후 인도환생(人道還生) 했는데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살이하는 업으로 태어났어요.

스무살 때 절에 들어와 부목을 살게 되었는데 누구든지 그를 보면 곰같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아궁이에 불을 때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곰같다'고 하는지 의증이 났어요. 다발채로 아궁이에 땔감을 밀어넣으면서도 그것에만 매달린 거예요. 뒤에 공양주 보살이 공양간에 들어와 보니 밥은 다 탔는데 우두커니 서 있더란 거예요. 공양주 보살이 꽥 소리를 치니, 그 순간에 이 총각이 깨쳤어요. 깨닫고 보니 자신이 전생에 곰이었고, 견성하지 못한 이가 조실 자리에 앉아 있는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깨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발심(發心)만 제대로 한다면 금생이나 내생이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처음 발심할 때 정각을 얻는다"는 〈화엄경〉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미물인 곰도 해 내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예요? 다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자기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남을 제도할 수가 없어요. 고인이 말하길 "전생의 일은 금생의 나를 보면 알 것이요, 내생은 금생의 하는 모양을 보면 안다"고 했어요. 금생에 부지런히 도를 닦으면 생사를 자재할 수 있고 남도 제도할 수 있어요. 금생에 일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내생에는 도인이 될 것이니, 힘이 있을 때 정진하십시요. 이것이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큰 일입니다.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이 도리를 알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번의 경제위기도 한 철이 지나면 풀릴 터이니 모두가 화합해서 나라를 살리고, 조만간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과도 마음의 문을 열어 통일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내 마음자리 깨닫는 방법을 설한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고 대장부의 길을 열심히 걸어 가세요.

정리=김재경 기자

몸뚱이는 마음의 집 "무엇을 나라고 할까"

본성 찾으려거든 大信·大願·大憤은 필수

나와 경전 〈42〉

관무량수경

동 봉
'우리절' 주지

〈관무량수경〉은 정토삼부경의 하나로 리우쏭(劉宋)의 지앙리앙예서(彊良耶舍)가 서기 424년에 번역한 것이다.

〈정토삼부경〉이란 잘 알다시피 똥진의 쥐에시엔(覺賢)이 빠오윈(寶雲)에서 서기 421년에 번역한 〈무량수경〉과 쿠마라지바(Kumarajiva)가 번역한 〈아미타경〉을 함께 일컫는다.

우리는 보통 〈아미타경〉은 잘 알고 있으나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에 대해서는 그리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아미타경〉은 경전의 분량이 지극히 짧고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미타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을 간과할 수는 없다.

나는 목동 법안정사에서 93년에 〈아함경〉강의를, 94년에 〈정토삼부경〉을, 95년에 〈승만경〉을 강의했다.

일반불자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경전을 미리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관무량수경〉의 개요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읽고 또 읽었다. 읽을수록 끌려드는 경전의 매력,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세상에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곧잘 벌어지곤 한다.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련의 사건들, 아들이 아버지를 시해하고, 학생이 교수를 구타하고 하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터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런 때 우리 불자들에게 어떤 경을 읽게끔 할 것인가. 그래, 〈관무량수경〉을 권해야겠다. 그렇다면 우선 〈정토삼부경〉을 교재로 택해야지"

내가 〈정토삼부경〉을 택하고 일요법회에 통보하자 불자들은 예상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금강경〉이나 〈천수경〉같이 알려진 경전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정토삼부경〉이냐는 것이다. 어렵게 불자들을 이해시키고 그대로 진행했다.

〈관무량수경〉은 라자가하의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라자가하의 왕 빔비사라와 그의 왕비 바이데히는 단 하나 밖에 없는 태자를 두었다. 태자의 이름은 아자타사트루(Ajatasatru)였다. 그런데 그 태자가 성장하여 부왕인 빔비사라를 가두고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 이때 바이데히는 부처님께 지성으로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을 맞게 된 전생의 업연은 무엇이며 어찌하면 그러한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를 묻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바이데히 앞에 나타나 여러가지로 인연을 설하고 차제에 극락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펼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극락세계가 찬란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관무량수경〉에서는 열 여섯가지 관상법을 통해 상중하의 근기들이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아미타불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왕생할 수 있다는 설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관무량수경〉에서도 '나무아미타불'의 육자진언을 염송하므로써 마침내 원왕생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설파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있다.

인륜의 중요성 강조…"서로 포용하라"

16가지 관상법 통해 극락정토 안내

극락세계를 다른 말로는 정토(淨土)라고 한다. 정토란 글자 그대로 쾌적한 환경을 뜻한다. 쾌적한 환경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마음을 텅 비우고 모두를 포용하는 데서만 가능하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거나 극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불가능하다. 〈관무량수경〉은 바로 그 점에 착안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언제나 참되고 부드러운 언어를 구사하라고 가르친다.

특히 아자타사트루의 패역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인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목동 법안정사 일요법회 때마다 아름다운 눈망울을 반짝이며 강의에 열중하던 불자들의 모습을. 그렇다. 극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열려갈 것이다.

현수막

불기2542년 무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에 부처님 사진을 칼라로 넣어서 제작해 드립니다.
⊙ 공정이 복잡하여 미리 주문을 받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가격: 5m×90cm에 ₩35,000(배달비 포함)

한울기획
(02) 474-2040
474-2041
FAX : (02) 477-2316

생전예수재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

생전예수재의 공덕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국판 72페이지, 개정판
● 법보시 특가: 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FAX.(02)738-8682

생전예수재 용품 판매합니다.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수강생 모집. 사경은체와 용이 있고 법파 대가 있습니다.(통신도 가능)
반야심경, 법화경 모든 경전 서예 수강생 특별지도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관음출판사

■ 신간 — 관음 역서시리즈

命理學 萬問萬答

대자연의 법칙은
즉 하늘의 도(道)다.

哲學博士 曺 誠 佑 지음
/ 값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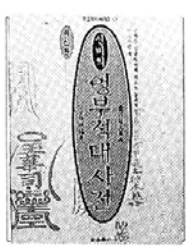
지키고, 뜻도 세워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행운(幸運)의 길흉을 짐작해서 화복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임에 이 모르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터득하려면 문답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된다.

송월스님 著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신국판/값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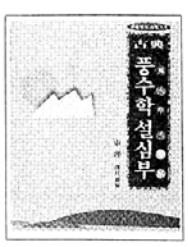


김백만 편저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A5신/양장본/35,000원



申 坪 지음

古典풍수학 설심부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러지는 것이니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값18,000원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